

反應性 愛着 障礙兒와 정상아의 의사소통 및 모자 상호작용 유형 비교연구

COMPARISON OF COMMUNICAT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이 혜 린*·최 영 림*

Helen Lee, M.D.,* Young Rim Choi, MA.*

요 약 : 본 연구는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의사소통 및 모자 상호작용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 각 12명씩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참여했다. 어머니와 아동은 이혜련 신경정신과 의원의 놀이치료실에 내원하여 가정에서 하듯이 놀이하라는 지시를 받고 15분간의 자유놀이를 하였고 이를 녹화하였다. 녹화된 테이프를 전사자료로 작성하여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상호작용 유형은 시간 표집 방법으로 분석하여 빈도자료를 얻었다. 이 자료는 t-검증, 상관계수로 통계처리 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 두 집단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수용적 발어”, “정보요구”, “기술”, “자기기술”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 2) 두 집단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수용적 발어”, “명명하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 3) 두 집단의 상호작용 유형에서는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그들의 어머니 모두가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빈도가 적었고, 아동의 혼자놀이는 더 많았으며 혼자놀이 시의 어머니의 반응은 통제와 무반응이 정상아 집단보다 많았다.
- 4) 두 집단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 상호작용 유형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던 항목들 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아동의 “수용적 발어”, “정보요구”, “기술”, “자기기술”은 “상호작용 시작”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혼자놀이”, “통제”, “무반응”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서 론

아동은 말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응시나 몸짓, 발성 등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Bernstein & Tiegernan 1985). 언어 전 단계의 영아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의도 즉 요구하기, 주장하기, 주의 획득하기, 거부하기, 일상적

놀이를 시도하기 등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몸짓이나 발성으로써 표현하다가 점차 사회에서 유용한 형태의 언어구조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된다(Bruner 1974, 재인용).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 구조에 선행하여 발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사소통 기능의 분화를 언어발달 단계와 관련지어 Dore등(1989, 재인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언어전단계의 아동에게서는 성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인사하기, 주기, 보여주기, 타인의 메시지에 대해 수용했음을

*이혜련 신경정신과, Korean Mental Health Clinic for Children

알리기, 요구에 반응하기 등이 나타나며 한 단어 단계의 아동에게서는 명명하기, 모방하기, 부르기, 향의하기, 연습하기가 나타난다고 한다. 복합단어 수준의 아동에게서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술하기, 사실, 규칙, 태도, 감정, 신념 등을 진술하기(stating), 규칙적인 대화 나누기, 목표지향적 활동을 위한 언어적 기능들이 사용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의사소통 기능의 발달은 언어발달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발달단계를 거쳐 점차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사용하도록 발달하며 언어의 의사소통의 기능도 기본적인 요구에서 좀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은 사회화된 의사소통의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그 중에서도 성인과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성인 세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언어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성인의 의사소통 유형은 그 상황에서 하나의 구조로 작용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를 깨닫게 한다(Crosaro 1979). 따라서 과거 수년동안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밝히고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 발달은 아동이 받게 되는 언어 자극의 질과 양, 유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고 있다(McCartney 등 1982 ; Well 1980). 또한 어머니의 말의 특성은 아동의 언어 교수나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Brown 1977 ; Newport 등 1977). Broen(1972), Phillips(1973), Remick(1972)과 Snow(1977)에 의해 논의되었던 언어 교수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술과 언어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말의 복잡성이다. 어머니의 문장 길이와 구조는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져야 한다. 아동의 언어구조가 발달하면서 어머니의 말의 복잡성이 함께 증가해야 효과적인 언어 교수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둘째는 어의적 연관성이다.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내용은 그 상황적인 맥락 안에서 아동에 의해 결정된다. 즉 아동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말해주거나 주의를 함께 함으로써 아동이 하고 있는 활동과 어머니의 말과의 어의적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세째는 여분의 말을 첨가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은 진행중인 상황과 연관성이 있으며 여분의 말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의 언어적 메시지는 명료성을 높이려는 설명이나 아동의 환경경험에 대한 제언이 많다. 이러한 아동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은 아동의 구문론과 어의론적 지식을 확장시킨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자극은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 형식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습득케 한다.

네째는 어머니의 반응성이다. 즉 아동의 음성, 발성, 몸짓, 활동에 대한 일관적인 어머니의 반응성을 말한다. 성인이나 사물로부터 일관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경험하는 것은 영아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그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행동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한다(Beckwith 등 1976 ; Bardley & Caldwell 1976, 재인용). Bruner(1974)는 성인은 상황적인 맥락 안에서 아동의 행동에 대해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아동의 선행행동에 대한 연관된 후속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이와 같이 아동의 활동에 주의를 함께 하고, 해석하고, 일관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좀더 발전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한다. 아동이 시작한 활동에 대해 반응자/매개자로서의 어머니의 일관적인 태도는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타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자로서의 역할을 가르친다.

다섯째는 상호교류성(reciprocity)이다. 어머니는 영아를 의사소통 과정의 상대자로 간주하고 영아의 행동을 해석하고 영아로부터 반응을 도출시키고자 노력한다. 어머니가 반응자의 역할을 하면 영아는 화자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가 화자로서 상호작용하면 영아는 청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대화의 순서 지키기 규칙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머니는 시간적 추이를 제공하고(Stern 등 1983, 재인용), 말의 마지막 음조를 올리고, 발성의 끝을 명확히 한다. 이런 부수적 단서들은 아동의 교대행동을 발달시키고 대화의 기초를 습득케 한다. 의사소통 행동은 언어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화자와 청자로서의 상호작용 능력은 의사소통 행동의 기본적인 뼈대를 형성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말 유형은 영아가 이러한 역할을 학습하기 위한 단서로 이해되기 쉽도록 상호작용을 돕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 자극 유형이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적절히 상호작용 해주는 것 또한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모자 상호작용 유형 또한 아동의 언어 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Olson 등(1984)의 연구에서는 모자 상호작용 유형으로 이후 아동의 인지, 언어적인 개인차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행동차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행동변인은 극히 지속적인 특징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근접성, 양육적 접촉, 언어 자극/반응성, 통제성은 시간이 흘러도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 또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특성은 아동 초기에는 아동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 특성이 지속되면서 이후 아동의 인지, 언어적인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제안하고 있다. 모자 상호작용에서 언어적 접촉이 많고 처벌이나 통제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인지, 언어 능력이 높았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적인 특성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반응성 정도를 미리 통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자 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아동의 인지, 언어 발달에 기여하는 영아의 선천적인 기질 이외에 양육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몇몇 연구들은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과 정상아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상호작용 유형과 언어 발달간의 관계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학대받은(maltreated) 아동의 언어지체와 왜곡을 보고하고 있다. 즉 정상아와 비교하여 볼 때 표준화된 언어성 검사에서는 정상 수준을 보였다 할지라도 대화 상황에서는 심각한 왜곡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상황에 부적절한 말이 많으며, 내용이 빈약하고 추상적인 개념 표현이 어렵다고 한다(Blager & Martin 1976; Elmer 1981; Elmer & Gregg 1967; Martin 1979, 재인용).

Braunwald(1983)의 연구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을 관찰한 결과 그들은 연령에 적합한 의사소통 교류 형태를 가지고 말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Coster 등(1989)의 연구에서는 31개월 된 학대받은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자녀들이 상황을 녹화)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을 기록하고 동시에 표준화된 언어성 검사를 사용해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여 정상아의 어머니와 아동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현언어(expressive language)에서는 비학대 집단 아동이 더 우수하게 나왔으며 수용어휘(receptive language)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비학대 집단이 정보요구적 표현과 사물과 사건에 대한 기술적 표현량이 더 많았고 자신의 활동과 내적 상태에 대한 표현이 우세하게 많았다고 한다. 학대받은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은 자신의 활동과 사물들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는 표현이 적고 대화의 상대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는 적극적인 시도 대신 최소의 반응만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를 조합하기보다는 즉각적인 현재의 상황에 치중되었고 자신의 내적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의사소통의 내용 면에서도 복잡성과 풍부성에서 제한을 보였는데 서로 대화를 유지하고, 연관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단지 간단한 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대화가 끝이 났다.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특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언어 발달 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다.

Cunningham 등(1981)의 연구에서는 정상아와 지체아(retarded children)의 모자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지체된 아동은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이 더 적었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해 덜 반응적이었으며, 혼자 놀이 상황이 정상아보다 많았다. 또한 그들의 어머니는 놀이나 과제 상황에서 더 지시적이고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빈도가 더 적었고 아동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적었다. 아동의 혼자 놀이 상황에서는 정상아의 어머니가 관찰 행동이 많았던 반면 지체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통제하는 빈도가 많았다. 지체 아동이 정상아보다 어머니의 요구에 덜 순응적이라는 증거는 없었으나 그들의 어머니는 더 지시적이고 아동의 순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덜 보였다.

언어 발달 지체아와 정상아간의 모자 상호작용 유형 비교 연구들의 일관적인 결과는 언어 발달 지체아와 어머니는 상호작용이나 놀이 자극을 더 적게 제공하고(Wulbert 등 1975),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반응성이 더 낮게 나왔으며 아동의 활동에 대해 더 통

제적, 지시적이었다는 것이다(Cohen등 1978).

Gersten등(1986)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의적. 성숙도와 어휘발달, 의사소통 유형을 평가하고 어머니의 애착의 질(낮선 상황에서 아동의 반응을 관찰하여 Ainsworth의 애착 유형에 따라 분류)을 평가하여 그 관계를 보았다. 그 결과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의 경우 어의적으로 복잡한 발성을 더 많이 하고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여 사물과 사건, 자기자신과 타인에 대한 발어량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어머니의 애착 정도, 양육태도,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은 아동의 언어발달 특히 화용론적 기술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Bates 1974 ; Dore 1979 ; Lieven 1974, 재인용).

위와 같이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언어특성과 모자 상호작용 유형을 찾고자 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초기 모자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서 상당히 지속적인 특성으로 남아있으며, 그러한 특성은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Olson등 1984). 즉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달하며 초기의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언어자극 및 상호작용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기의 부적절한 양육경험으로 인해 어머니와 애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임상적 증후가 나타나는 아동들이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미국 정신의학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분류 기준인 DSM-III(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III)에는 “반응성 애착 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s)”로 분류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에서도 소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기능 장애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진단기준에서 보면 뚜렷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을 보이는 것이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주요특성의 하나이며, 식욕부진, 우울한 감정, 발달지수의 저하, 발육부진 등의 신체적인 증상과 발달상의 문제도 나타난다. 특히 운동기술과 언어발달에서의 지체를 많이 보이며 환경 안에서 위축되고 호기심이 없어 장난감에 대한 흥미를 거의 나타내지 않고, 외부환경에 무관심하고, 호명이나 지시에 대해 잘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언어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전반적인 발달 특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반응성 애착 장애아는 인지, 언어, 지각 등의 전반적인 발달이 지체되어있고 특히 언어 발달의 지체가 뚜렷하며 언어 표현량의 부족, 의미의 혼란 등 병리적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윤현숙 1991). 또한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놀이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반응성 애착 장애아는 치료자가 아동의 활동에 수용적으로 반응해주고, 아동의 흥미와 지적 수준에 적합한 언어자극 및 놀이자극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정에서의 양육환경도 이와 같이 변화되자 언어 표현량이 증가하고, 타인의 언어 수용력이 향상을 보였다고 한다(정희정 1992). 즉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언어적 문제는 가정의 양육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문제, 운동 및 언어발달 영역에서의 지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의 일차적 양육자로부터 받은 심한 병리적 양육인데, 병리적 양육에는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경우, 양육자를 상실한 경우, 부적절한 양육 태도등이 포함된다(이혜련 1992).

위에서 보았듯이 어머니의 성격, 가족환경, 양육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에게 반응성 애착 장애를 유발시키게 되어 아동은 여러 가지 정서·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문제와 발달상의 지체 특히, 언어발달의 지체와 병리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의 병리적 양육 경험한 반응성 애착 장애아들이 정상아와 비교하여 의사소통 유형상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어머니들의 언어자극 유형과 모자 상호작용 유형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봄으로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언어자극 및 모자 상호작용의 영향을 입증하고 반응성 애착 장애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며 아울러 치료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 1) 반응성 애착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 2)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와 정상아의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 3)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모자 상호작용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4)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이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및 모자 상호작용 유형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이해력 신경정신과에 내원한 아동 중 가족배경과 발달력을 알아보는 가족 평가, 운동 적응성, 언어 등 각 부분에 걸쳐 아동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발달 평가, 어머니와 아동과의 관계, 아동을 다루는 법, 놀이형태를 관찰하는 놀이평가 후 소아 정신과 전문의와의 평가회의를 거쳐 반응성 애착 장애로 확진받은 아동을 선정하였다.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경계선 지능 이상의 지능지수를 보인 아동만을 선별하여 피험자로 포함시켰다. 두 비교 집단은 생활 연령과 부모의 학력을 통제하여 표집하였다.

피험자의 연령분포와 남녀비율은 다음 표 1과 같고 부모의 학력 분포는 표 2와 같다.

2. 실험도구

1) 의사소통 유형

아동,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Co-ster등(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13개의 의사소통 기능 범주(Categories of Functional Communication)를 사용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사회적/화용론 기능의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상호베타적인 12개의 범주는 초기 복합단어수준의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의 화용론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다(Bates 1976; Bloom & Lahey 1978; Dore 1979). 각 기능범주에는 모방하기, 사물의 이름 말하기, 정보

찾기, 타인에게 활동 요구하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기술하기, 사물에 대해 기술하기 등이 포함되어있다. 의사소통의 범주는 문법적 형태, 억양에 따른 구분 그리고 전달 내용의 의도를 고려하여 구분한다. 의사소통 유형을 적용하여 예비 실험해 본 결과 몇가지 항목에서 삭제와 첨가가 필요하여 수정 보완된 것을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각 범주의 정의와 예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2) 상호작용 유형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분석은 Mash등(1973)에 의해 고안된 response-class matrix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졌다. 관찰 연구에서는 관찰행동의 도식이 간단할수록 방법론적 적용은 수월해지지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반면 도식이 복잡해지면 관찰 행동과 그것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지만 방법론적인 문제와 신뢰로운 자료해석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Mash등(1973)은 관찰되어질 행동과 그 행동의 상황적 맥락을 선행(antecedent)-후행(consequent)행동 쌍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방법론적인 용이성과 관찰이 주는 정보의 다양성을 얻고자하였다.

이러한 측정 항목을 사용한 연구로서 Cunningham등에 의한 두 연구(1981, 1985)가 있는데 첫 연구에서 그들은 어머니와 아동의 자유 놀이를 녹화하여 두명의 기록자 중 한명은 특별한 아동의 선행행동(순응, 혼자놀이, 부정적 행동, 상호작용, 무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후행행동(요구, 요구적 질문, 칭찬, 부정적 행동, 질문, 상호작용, 무반응)을 기록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사람은 어머니의 선행행동에 대한 아동의 후행행동을 기록하였다. 이와같은 입력 자료를 통해 아동이나 어머니의 선행행동이 전제된 아동이나 어머니의 후행행동을 중심으로 10개의 상

표 1. 피험자 연령

피험자수	2-3세	3-4세	4-5세	5-6세	남	여	계	평균연령
반응성 애착 장애	1	6	3	2	9	3	12	3세 7개월
정상아	2	5	3	2	9	3	12	3세 9개월

표 2. 부모 학력

부모 학력	아버지		어머니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반응성 애착 장애아	11	1	7	5
정상아	10	2	6	6

호작용 유형의 측정기준을 고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Cunningham등(1985)의 연구인데,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측정 기준을 11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실험 결과 Cunningham등(198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기준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Cunningham등(1981)에서 사용된 측정기준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의 정하는 부록 2에 제시되어있다.

3. 실험 절차

1) 예비 실험

본 실험에 앞서 의사소통 유형 및 상호작용 유형 평가기준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험절차를 확정짓기 위해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 각각 2명씩에게 1993년 5월에 예비실험하였다.

두 집단의 아동과 어머니는 모두 놀이평가실에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15분간의 자유놀이를 녹화하였다. 녹화된 자료를 전사(transcript)하여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였는데, 언어의 형태나 억양은 질문인데, 그것이 내포한 의미는 요구나 권유의 의미를 갖고있는 언어표현이 매우 많았다. 예를들면 “~해 볼까?”라는 표현들인데, 이와 관련되어 평정자간의 불일치가 많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정보요구”는 질문의 형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특별한 언어적 반응이나 설명을 찾는 것이고, “활동요구”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활동의 규정을 하는 것이어서 질문의 형태를 갖고서 간접적인 활동규정을 시도하는 언어적 표현은 그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범주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요구적 질문(commend-question)”의 새로운 항목을 첨가시키기로 하였다. 기타 항목은 예비평정 결과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기타” 항목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대한으로 상황적 맥락과 화용론적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기타”항목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하고 그 항목을 제외시켰다.

상호작용 유형의 측정 기준의 적용에서는 두가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기준 중에서 Cunningham등(198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기준은 “아동의 상호작용”과 “아동이 시작한 상호작용”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의 상호작용” 항목이 없는 Cunningham등(1981)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기준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본 실험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자유놀이는 놀이 평가를 받을 당시 어머니와의 자유 놀이를 녹화하였던 자료를 사용하였고, 정상아와 어머니도 1993년 6월~7월에 이해던 신경정신과에 직접 내원하여 반응성 애착 장애아가 15분간 자유놀이를 녹화했던 놀이평가실에서 역시 15분간의 자유놀이를 녹화하였다. 두 집단 모두 자신들이 녹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하듯이 자연스럽게 놀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4. 자료분석

녹화된 자료는 2명의 기록자가 각각 언어 뿐만 아니라 상황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언어적인 행동까지 전사하여 함께 대조해보고 만약 다르게 기술된 것이 있으면 함께 테이프를 보고 다시 수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전사 자료를 완성하고 이 자료를 보고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빈도자료를 산출하였다.

상호작용 유형 분석은 평정자가 녹화 자료를 10초 간격으로 나누어 보면서 상호작용 유형의 측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가장 첫 행동만을 입력하여 빈도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의사소통 유형의 신뢰도는 평정자간 신뢰도가 91%였으며 평정자내 신뢰도는 98%였다. 상호작용 유형의 신뢰도는 두명의 평정자가 하나의 비디오를 함께 보고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97%였다.

연구결과

1.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의사소통 유형에서의 차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간의 의사소통 유형에는 몇가지 항목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수용적 발어(filler)($t = -3.20, p < .05$), 정보요구($t = -5.05, p < .001$), 기술($t = -4.51, p < .001$), 자기기술($t = -4.03, p < .001$)에서 정상아 집단이 의미있게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즉, 반응성 애착 장애아들은 첫째, 의미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대화 유지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발화가 더 적었고 둘째, 자신이 처해있는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해

타인에게 특별한 언어적 반응과 설명이나 기술을 찾는 질문이 더 적었고 세계, 자신이 처한 외부환경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질적 특징에 대한 기술이 적었고 넷째, 자신의 내적 상태 즉 정서, 주장, 심리적 상태에 대한 자기기술이 더 적게 나타났다.

반응성 애착 장애아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의사소통 유형은 명명이고 그 다음은 모방, 반복의 사용이 많았다. 그러나 정상아는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 기술하는 자기기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명명, 기술 그리고 정보요구의 사용이 많았다.

2. 반응성 애착 장애아 어머니와 정상아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서의 차이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와 정상아의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는 몇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수용적 발어($t = -3.57, p < .05$)와 명명, ($t = -2.50, p < .05$)에서 정상아의 어머니가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즉,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의미있는 언어 표현은 아니지만 대화 교류의 의도를 전달하는 발화를 더 적게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처한 외부 환경자극을 사물의 명칭으로서 표현하는 빈도가 정상아의 어머니 보다 의미있게 더 적었다.

또한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는 정보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활동요구, 기술의 사용이 많

았던 반면 정상아의 어머니는 정보요구, 기술, 활동요구의 순서를 보였다.

3.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모자 상호작용 유형에서의 차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상호작용 유형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t = -3.33, p < .05$), 아동의 반응($t = -6.63, p < .001$), 아동의 무반응($t = 3.23, p < .01$), 아동의 대답($t = -2.46, p < .05$),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t = -3.56, p < .05$), 어머니의 반응($t = -4.93, p < .001$)은 정상아 집단이 더 많았다. 혼자놀이($t = 3.84, p < .05$), 어머니의 통제($t = -4.26, p < .05$), 어머니의 무반응($t = 2.3, p < .05$)에서는 반응성 애착 집단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그 어머니는 모두 상호작용 시작이 더 적었고, 상대방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동은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 빈도에 관계없이 의미있게 반응성이 떨어졌고, 어머니는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이 적어서지 실제로 의미있게 반응성이 떨어지는 않았다. 반응성 애착 장애아는 혼자놀이 상황이 더 많고, 혼자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통제나 무반응이 정상 집단 보다 많았다.

4.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및 모자 상호 작용 유형과의 관계

표 3.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의사소통 유형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N=12)

	반응성 애착 장애아		정상아		t
	M	SD	M	SD	
모 방	4.58	6.32	3.50	4.66	0.48
반 복	3.00	5.41	2.17	2.52	0.48
수용적 발어	1.00	1.71	6.50	5.70	-3.20**
교류하기	0.00	0.00	0.00	0.00	0.00
주 의	0.16	0.39	0.58	0.67	-1.87
일상, 사회	1.83	2.17	2.00	2.90	-0.16
활동 요구	0.92	1.88	2.17	2.04	-1.56
정보 요구	0.42	1.44	7.67	4.75	-5.05***
요구적 질문	0.08	0.29	0.25	0.62	-0.84
명 명	6.58	9.26	10.25	6.02	-1.10
기 술	0.75	1.48	10.08	7.15	-4.51***
타인기술	0.50	1.44	0.58	1.08	-0.16
자기기술	2.75	3.84	12.17	7.12	-4.03***

** $p < .01$, *** $p < .001$

1)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몇 가지 항목이 있었다. 아동의 수용적 발어의 어머니의 수용적 발어($r=.82$), 주의($r=.57$), 명명($r=.41$), 기술($r=.47$), 아동의 주의와 어머니의 수용적 발어($r=.60$), 아동의 정보요구와 어머니의 수용적 발어($r=.69$), 아동의 명명과 어머니의 모방($r=.83$),

정보요구($r=.55$), 아동의 기술과 어머니의 수용적 발어($r=.83$), 명명($r=.41$), 타인기술($r=.41$), 아동의 타인기술과 어머니의 모방($r=.50$), 자기기술($r=.42$), 아동의 자기기술과 어머니의 모방($r=.64$), 수용적 발어($r=.57$), 정보요구($r=.48$), 명명($r=.59$), 기술($r=.61$)의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수용적 발어, 정보요구, 기술, 자기기술은 두 집단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던 수용적 발어, 명명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4. 반응성 애착 장애아 어머니와 정상아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N=12)

	반응성 애착 장애아		정상아		t
	M	SD	M	SD	
모 방	5.25	6.98	9.58	5.99	-1.63
반 복	13.83	8.16	9.83	9.13	1.13
수용적 발어	1.33	2.71	7.50	5.33	-3.57**
교류하기	0.00	0.00	0.00	0.00	0.00
주 의	2.08	1.31	2.50	3.06	-0.43
일상, 사회	3.67	3.50	2.83	3.43	0.59
활동 요구	22.00	17.93	26.08	19.47	-0.53
정보 요구	29.25	16.42	38.83	20.52	-1.26
요구적 질문	5.25	6.52	2.83	2.86	1.18
명 명	4.75	2.63	10.00	6.80	-2.50*
기 술	18.08	11.84	31.67	23.13	-1.81
타인기술	4.50	4.17	6.50	6.50	-0.90
자기기술	6.00	5.78	5.92	6.50	0.04

* $p<.05$, ** $p<.01$

표 5.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모자 상호작용 유형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N=11)

	반응성 애착 장애아		정상아		t
	M	SD	M	SD	
엄마의 상호작용 시작	10.73	6.71	19.64	5.80	-3.33**
아동 반응	4.09	3.08	18.09	6.28	-6.63***
아동 무반응	6.64	4.82	1.55	2.02	3.23**
엄마의 질문	3.36	3.70	4.91	4.97	-0.83
아동 대답	0.82	1.25	4.09	4.23	-2.46*
아동 무대답	2.55	2.73	0.82	1.17	1.93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	3.45	6.36	12.09	4.91	-3.56**
엄마 반응	2.64	4.08	12.00	4.80	-4.93***
엄마 무반응	0.82	2.40	0.09	0.30	0.1
아동의 혼자 놀이	43.09	10.07	24.55	12.43	3.84**
엄마의 격려	13.27	9.19	12.18	7.18	0.31
엄마의 통제	5.45	3.90	0.36	0.67	4.26**
엄마의 무반응	24.36	15.21	12.00	9.31	2.30*

* $p<.05$, ** $p<.01$, *** $p<.001$

표 6.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어머니 의사소통 유형간의 상관

아동	어머니	모 방	반 복	수용적발어 교류	주 의	일상사회	활동요구	정보요구	요구질문	명 명	기 술	타인기술	자기기술
모 방	.51	.24	.06	.22	.23	.38	.35	-.14	.45*	.32	.25	.39	
반 복	.48	.20	.26	.22	-.00	.28	.25	-.03	.23	.88	.17	.32	
수용발어	.22	.23	.82***	.57**	.00	.30	.12	-.15	.41	.47*	.21	.03	
교 류	.26	-.13	.60**	-.02	-.03	.12	-.10	.02	.06	.11	.15	.21	
주 의	.11	.08	-.13	-.03	.33	.07	.24	.17	.07	.21	.05	.16	
일상사회	.32	-.08	.27	-.04	.09	.27	.18	-.21	.02	-.01	.09	.14	
활동요구	.25	-.14	.69***	.27	-.26	.03	.08	-.28	.34	.32	-.02	.07	
정보요구	.00	-.17	-.08	-.20	.11	-.04	.22	-.09	-.34	-.20	-.17	-.12	
요구질문	.83***	.15	.33	-.01	-.04	.30	.55**	-.02	.47*	.42	.34	.40	
명 명	.40	.02	.83***	.39	-.09	.34	.21	-.21	.41*	.33	.41*	.05	
기 술	.50	.00	-.11	-.09	.13	.29	.02	-.21	.23	.05	.37	.42*	
타인기술	.64***	.02	.57**	.24	.01	.38	.48*	-.01	.59**	.61**	.38	.18	

*p<.05, **p<.01, ***p<.001

표 7.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모자 상호작용 유형간의 상관

아동	임마상호작용시작	아동반응	임마질문	이동대답	아동상호작용시작	엄마반응	혼자놀이	격 려	통 제	무반응
모 방	.12	.04	-.00	-.11	.29	.19	-.01	.00	.51*	-.15
반 복	.04	.12	.12	.04	.49*	.35	.04	.04	.38	-.09
수용발어	.58**	.70***	.32	.49*	.55**	.61**	-.47*	-.09	-.30	-.36
교 류	.43*	.54**	.20	.39	.44*	.43*	-.23	-.10	-.24	-.12
주 의	.13	.08	.19	.21	.01	.03	.04	.30	.10	-.16
일상사회	.28	.39	.32	.39	.68***	.61**	-.05	.35	-.10	-.23
활동요구	.47*	.71***	.18	.41	.54**	.59**	-.50*	.20	-.47*	-.28
정보요구	.24	.08	.12	.09	.29	.32	.10	.44*	-.12	-.11
요구질문	.26	.34	.30	.24	.68***	.58**	-.19	.05	.26	-.31
명 명	.68***	.80***	.34	.54**	.61**	.71***	-.47*	.10	-.34	-.46*
기 술	.01	-.03	.22	.27	.10	.13	.18	.50*	.45*	-.22
타인기술	.68***	.81***	.15	.37	.59**	.67***	-.53*	.16	-.18	-.60**

*p<.05, **p<.01, ***p<.001

2)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모자 상호작용과의 관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모자 상호작용 유형간에는 몇 가지 항목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 중에서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수용적 발어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r=.58$),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아동반응($r=.70$),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아동대답($r=.49$),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r=.55$), 아동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r=.61$), 혼자 놀이($r=-.47$), 아동의 정보요구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r=.47$), 아동반응($r=.71$),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r=.54$), 아동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r=.59$), 혼자놀이($r=-.50$), 어머니의 격려($r=-.47$), 아동의 기술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r=.68$),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아동의 반응($r=.80$),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아동대답($r=.54$), 아동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r=.71$), 혼자놀이($r=-.47$), 어머니의 무반응($r=-.46$), 아동의 자기기술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r=.68$),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아동의 반응($r=.81$),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r=.59$), 아동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r=.67$), 혼자놀이($r=-.57$), 어머니의 무반응($r=-.60$)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반응성 애착 장애아가 정상아 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왔던 의사소통 유형인 수용적 발어, 정보요구, 기술, 자기기술은 아동이나 어머니가 상호작용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적절히 반응해주는 상호작용 유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반면에 혼자놀이나 어머니의 통제, 무반응한 상호작용 유형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논 의

앞에서 우리는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어머니와의 자유놀이가 상황을 녹화하여 그들의 상호작용 유형과 의사소통 유형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몇가지 의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는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용적 발어”, “정보요구”, 사물과 사건에 대한 질적인 “기술”,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자기기술”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반응성 애착 장애아는 타인과 대화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언어적 반응을 하기보다는 반복적인 자기주장 표현이 많아 자연스러운 교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자신의 내적 상태의 기술이나 사람에 대한 상호교류적인 의사소통의 기능이 떨어지고 정보를 얻고자하는 의도가 부족하여 적절한 환경 탐색과 환경으로부터의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발달지체를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는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반응성 애착장애아는 의사소통 유형의 13개 항목 중 “명명하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방”과 “반복”의 표현이 많았다. 반면 정상아는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자기기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명하기”,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질적인 “기술”, “수용적 발어”가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의사소통 특성은 단순한 사물의 명칭을 표현하는 낮은 단계의 언어를 구사하며 상호교류적인 언어사용보다는 특별한 의사소통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기계적인 모방이 많고,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대신 단순한 언어의 반복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보았던 결과들은 Coster등(1989)의 학대아동 대상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 연구에서도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의 내적 상태와 활동 그리고 사물의 특징을 기술하는 표현이 적고, 대화상대자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부족하며, 즉각적인 현재의 상태에 치중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적 발어”에 대한 결과에서는 본 연구와 달랐는데, 학대받은 아동은 정상아와 비교하여 “수용적 발어”의 사용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학대 받은 아동은 의미있는 언어표현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고 “수용적 발어”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반응성 애착 장애아는 그러한 반응마저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학대받은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을 다룬 Braunwald(1983)의 연구에서도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의사소통 교류 형태를 가지고 말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없었다는 유사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Gers-

ten등(1986)의 애착 유형과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은 사물, 사건과 자기자신과 타인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많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음으로서 아동의 의사소통의 발달은 초기에 경험하는 양육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번째는 두 집단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용적 발어”와 “명명하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정상아의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이나 언어표현에 대해 최소한의 반응이나 수용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동의 대화 상태를 유지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 교류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물 중심의 어휘 확장이 더 많았다고 알 수 있다. 두 집단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의 경향을 비교하여 보면, 정상아의 어머니는 아동의 표현을 반응적으로 “모방”해주는 것이 많았던 반면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요구를 관찰시키기 위해 자신의 언어표현에 대한 “반복”이 많았다. 그리고 정상아의 어머니는 놀이의 확장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요구”, “정보요구”가 더 많았으나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요구를 질문형식으로 표현하는 “요구적 질문”이 많았다. 또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질적 “기술”보다는 의성어나 의태어 중심의 “일상, 사회적 언어” 표현 많았다. 두 집단 어머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 어머니 모두 “정보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는 “활동요구”가 정상아는 사물과 사건에 대한 질적 “기술” 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도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는 현재 진행중인 활동에 대한 질적인 기술보다는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려는 지시적인 언어사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반응성 애착 장애아의 어머니는 아동과의 언어적 교류에 적극성, 반응성이 부족하고 아동의 활동과 관련된 사물 중심의 언어 교류 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관찰시키려는 언어 사용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확대집단의 어머니는 “반복” 이외에 뚜렷한 의사소통 유형상의 특징이 없었다는 Coster등(198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비록 두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는 아니지만 몇가지 의사소통 항목에서 정상집단과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번째는 두 집단의 상호작용 유형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상아 집단의 상호작용 유형에 비해 반응성 애착 장애 집단에서는 상호작용을 먼저 시작하는 빈도가 적었고, 아동의 혼자놀이 상황이 많았으며, 아동의 혼자놀이시 어머니의 반응이 더 통제적이고, 무반응적인 관찰 행동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모자 상호작용 유형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번째는 두 집단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및 모자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몇가지 항목에서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있었는데, 우선 두 집단의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던 항목들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다음은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 모자 상호작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아동의 “수용적 발어”와 “정보요구”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과 아동의 반응,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과 어머니의 반응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아동의 혼자놀이와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사물과 사건에 대한 질적인 “기술”도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과 아동의 반응,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대답,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상호작용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아동의 혼자놀이, 어머니의 무반응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자기기술”은 어머니의 상호작용 시작과 아동의 반응, 아동의 상호작용 시작과 어머니의 반응과는 정적인 상관을, 아동의 혼자놀이와 어머니의 무반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반응성 애착 장애아가 정상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던 의사소통 항목은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시도와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반응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상호작용 즉 혼자놀이나 어머니의 통제, 무반응도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과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 정상아의 의사소통 유형,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및 상호작용 유형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두 집단 아동과 어머니 모두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었고, 상호작용 유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 모자 상호작용 유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므로써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 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반응성 애착 장애아는 어머니의 병리적 양육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언어발달 지체, 언어의 병리적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모자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상의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아동의 언어 발달은 지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능변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던 점이다. 물론 연구 대상 아동의 설정에서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사회 성숙도 검사 결과 경계선 이하의 지능 지수를 보인 아동은 제외시켰지만 반응성 애착 장애아는 전반적인 발달 지체가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된 아동들이므로 정상아 집단과 지능 변인을 완전히 맞추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둘째, 두 집단 아동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설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두 집단의 차이를 밝히므로써 어떤 경향성은 찾아 볼 수 있었지만 명확한 원인 제시는 안되었다. 셋째, 피험자 수가 너무 적어 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사후연구를 한다면 좀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윤현숙(1991) : 반응성애착장애아의 발달 및 병리적 특성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련(1992) : 반응성애착장애. 소아정신건강 2 : 1 한국소아정신건강클리닉
정희경(1992) : 반응성애착장애아의 놀이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tes E(1974) : Acquisition of pragmatic competence. Journal of Child Language 1 : 277-281
Bates E, Benigni L, Bretherton L & Volterra V(1975) :

The acquisition of performatives prior to speech. Merrill-Palmer Quarterly 21
Bates E(1976) : Language and context : The acquisition of pragmatics. New York : Academic Press
Bloom L & Lahey M(1978) : Language development and language disorders. New York : Wiley
Bernstein DK & Tiegerman E(1985) :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 in Children. Columbus :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Bousha D & Twentyman C(1984) : Mother-child interactional style in abuse, neglect, and control groups :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h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39 : 106-114
Broen PA(1972) : The verbal environment of the language-learning child, American Speech and Hearing Association. Monograph No 17
Brown R(1973) : A first Language : The early years. London : Allen & Unwin
Bruner J(1974) : From communication to language - A psychological perspective. Cognition 3 : 255-287
Carosaro W(1979) : Sociolinguistic Patterns in Adult-Child Interaction. Ochs, E & Schieffelin B(ed) Developmental Pragmatics. New York : Academic press
Cohen S, Beckwith L & Parmelee A(1978) : Receptive language development in preterm children as related to caregiver-child interaction. Pediatrics 61 : 16-20
Coster WJ, Gersten MS, Beeghly M & Cicchetti D(1989) : Communicative functioning in maltreated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 1020-1029
Cunningham CE, Reuler E, Blackwell J & Deck J(1981) : Behavior and linguistic developments in the interactions of normal and retarded children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2 : 62-70
Cunningham CE, Siegel LS, van der Spuy HIJ, Clark ML & Bow J C(1985) : The behavioral of specifically language-delayed and normal boy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6 : 1389-1403
Dore(1977) : Conversation acts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Developmental Pragmatics. New York : Academic Press
Dore J(1979) : Children's illocutionary acts. In : R Freedle(Ed), Discourse processes :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orwood NJ : Ablex
Gersten M, Coster W, Schneider-Rosen K, Carlson V & Cicchetti D(1986) : The Socio-emotional bases of communicative functioning : Quality of attachment, language development, and early maltreatment. In : ME Lamb, AL Brown & B Rogoff(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Hillsdale, NJ : Erl-

baum

- Hardy-Brown K, Plomin R & DeFris JC(1981)** :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Rate of communica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 704-717
- Hoff-Ginsberg E(1991)** : Mother-child conversation in different social classes and communicative Settings. *Child Development* 62 : 782-796
- Isabella RA, Belsky J & von Eye A(1989)** : Origins infant-mother attachment an examination of interactional synchrony during the infant's first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25 : 12-21
- Lieven E(1978)** : Conversations between mothers and young children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language learning. In : N Waterson & C Snow(Ed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London : Wiley
- MaCartney K, Scarr S, Phillips D, Grajek S & Schwartz JC(1982)** : Environmental differences among daycare center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development. In : E Zigler & E Gordon(ed). *Daycare :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 Boston : Auburn House
- Mash EJ & Terdal L(1973)** : The response-class matrix : A procedure for recoding parent-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 163-164
- Masur EF & Gloason JB(1980)** : Parent-child interaction and acquisition of lexical information during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16 : 404-409
- Moerk EL(1976)** : Process of language teaching and training in the interaction of mother-child dyads. *Child Development* 47 : 1064-1078
- Newport EL, Geleitman H & Gleitman LR(1977)** : Mother I'd rather do it myself : Some effects and non-effects of maternal speech style. In : C Snow & C Ferguson(Eds), *Talking to children : Language input and acquisition*(pp109-149).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chs E & Schieffelin B(1979)** : *Developmental Pragmatics*. New York : Academic Press
- Ochs E & Schieffelin BB & Platt ML(1979)** : Propositional across utterance and Speakers. *Development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Olson SL, Bates JE & Bayles K(1984)** :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cognitive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 166-179
- Phillips J(1973)** : Syntax and vocabulary in mother's speech to young children : Age and sex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44 : 182-185
- Salzingers, Wondolowsky-Severissions S, Kaplan T & Kaplan S, Kristal J(1985)** : A discourse analysis of the conversations between maltreat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Paper presented at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rch in Child Development, Tronto, Canada
- Snow C(1972)** : Mothers' speech to children learning language *Child Development* 43 : 549-565
- Snow C & Ferguson CA(1977)** : *Talking to children : Language input and acquisi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ow C(1977)** : Mather's speech research : From input to interaction. In : EE Snow and CA Ferguson(Eds) *Talking to children : Language input and acquisition*.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 D, Sprieker S, Barnett R & Mackain K(1963)** : The prosody of maternal speech : Infant age and context-related changes. *Journal of Child Language* 10 : 1-16
- Wasserman C, Green A & Allen R(1983)** : Going beyond abuse : Maladaptive patterns of interaction in abusing mather-infant pai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2 : 245-252
- Wellman HM & Lempers JD(1977)** : The naturalistic communicative abilities of two-year-olds. *Child Development* 48 : 1052-1057
- Whitehurst GJ, Fischel JE, Lonigan JC, Valdez-Menchaca MC, De Baryshe B & Caulfield MB(1988)** : Verbal interaction in families of normal and expressive-language-dela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 690-699
- Wulbert M, Inglis S, Kriegsman E & Milks B(1975)** : Language delay in associated Mather-child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 61-70

COMPARISON OF COMMUNICAT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Helen Lee, M.D., Yong Rim Choi, M.A.

Korean Mental Health Clinic for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ommunicat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of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children with normal children.

The subjects were 24 children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 12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children and mothers, 12 normal children and mothers. The mother and her child were brought into a play room and the mother was instructed to play with her child as she normally would at home. The play situations were videotaped.

Tapes were transcribed and transcribed data was analyzed with 13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encompassing pragmatic functions represented in communication from the early stage of multiword speech in childhood. The tapes were analyzed with 10 behavioral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s.

As the statistical method, t-test and correlation was calcu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children used significantly fewer "filler", "information", "requests", "describes" and "discuss self".
- 2)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children's mother used significantly fewer "filler" and "names".
- 3)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children used significantly more "independent play", fewer "initiates interaction", "responsiveness" and "answer".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children's mother used more "control play", "observe" and fewer "initiates interaction".
- 4) Children's communication patterns were related to mother's communicat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 types. Children's "filler", "information requests", "describes" and "discuss self" were consistently related to mother's "filler" and "names". Children's "filler", "information requests", "describes", "discuss self" and mother-child's initiates interaction, "responsivenes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and "independent play", "control play", "observation"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The results reveal that communicat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 pattern of reactive attachment disordered group was different from normal group and children's communication pattern were influenced by mother's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patterns.

KEY WORDS :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 Communication · Mother-child interactions.

□ 부 록 □

〈부록 1〉 의사소통 유형

- 1) 모방(imitation) : 상대방의 발성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모방한다. 억양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 어머니 : 큰 물고기 아동 : 큰 물고기
- 2) 자기 반복(self-repetition) : 이전의 표현을 정확히 반복하는 것. 즉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말을 반복한다. 예) 아동 : 이게 뭐야? 어머니 : 무반응 아동 : 이게 뭐야?
- 3) 수용적 발어(filler) : 실명사의 첨가 없이 대화 유지나 대화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발성들이다. 예) 응, 그래, 옹지
- 4) 교류(exchange) : 사물을 주고/받기 때 동반되는 표현들이다. 예) 여기 있어
- 5) 주의(attention) : 주의를 끄려는 언어 표현들이다. 예) 여기봐, 호명
- 6) 일상적, 사회적 표현(routines and social speech) : 인사나 사물과 관계적으로 연결되는 표현들 또는 언어적 유희들이다. 예) 고맙습니다. 부릉부릉(차를 밀며)
- 7) 활동 요구(action request) : 놀이자료나 사람에 대해 활동의 규정을 시도하는 표현들 즉 요구, 활동 요청, 제안, 지시 등이다. 예) 이거해, 그거줘, 가자 ~하는 거야, 안돼
- 8) 정보 요구(information request) : 특별한 언어적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명칭이나 약속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설명이나 기술을 찾는 질문들이다. 예) 이게 뭐야? 어디가?
- 9) 요구적 질문(commend-question) : 문법적 형태나 억양은 의문문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요구나 권유의 의사를 포함한 표현들이다. 예) 해볼까?
- 10) 명명(naming) : 이름만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 차, 공
- 11) 기술(description) : 사람, 사물, 사건들의 질적인 관계나 특징, 상태에 대한 진술들이다. 예) 다른 트럭, 이것은 깨졌다, 인형이 잔다, ~가 있다, 없다
- 12) 자기기술(discuss self) : 자신의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막 수행했던 활동을 기술하거나 자신의 정서, 주장, 다른 심리적 상태에 대한 표현들이다. 예) 나는 ~을 했다. 집을 만든다, ~을 할 수 없다.
- 13) 타인기술(discuss others) : 타인의 심리적 상태 즉 감정, 사고, 활동에 대한 표현들이다. 동물의 의인화도 포함시킨다. 예) 아기가 배고파, 그가 피곤해

〈부록 2〉 모자 상호작용 유형

- 1) 어머니가 시작한 상호작용 : 어머니가 시작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 2) 아동반응 :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질문이나 상호작용 반응.
- 3) 어머니의 질문 : 어머니의 질문.
- 4) 아동 대답 :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대답.
- 5) 아동의 시작한 상호작용 : 아동이 시작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 6) 어머니의 반응 :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반응.
- 7) 아동의 혼자 놀이 : 아동의 혼자 놀이로 시작되거나 초발 상호작용이 실패로 인한 혼자 놀이.
- 8) 어머니의 격려 : 아동의 혼자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이나 질문, 칭찬 반응.
- 9) 어머니의 통제, 방해 : 아동의 혼자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나 요구적 질문, 부정적인 반응.
- 10) 어머니의 무반응 : 아동의 혼자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무반응.